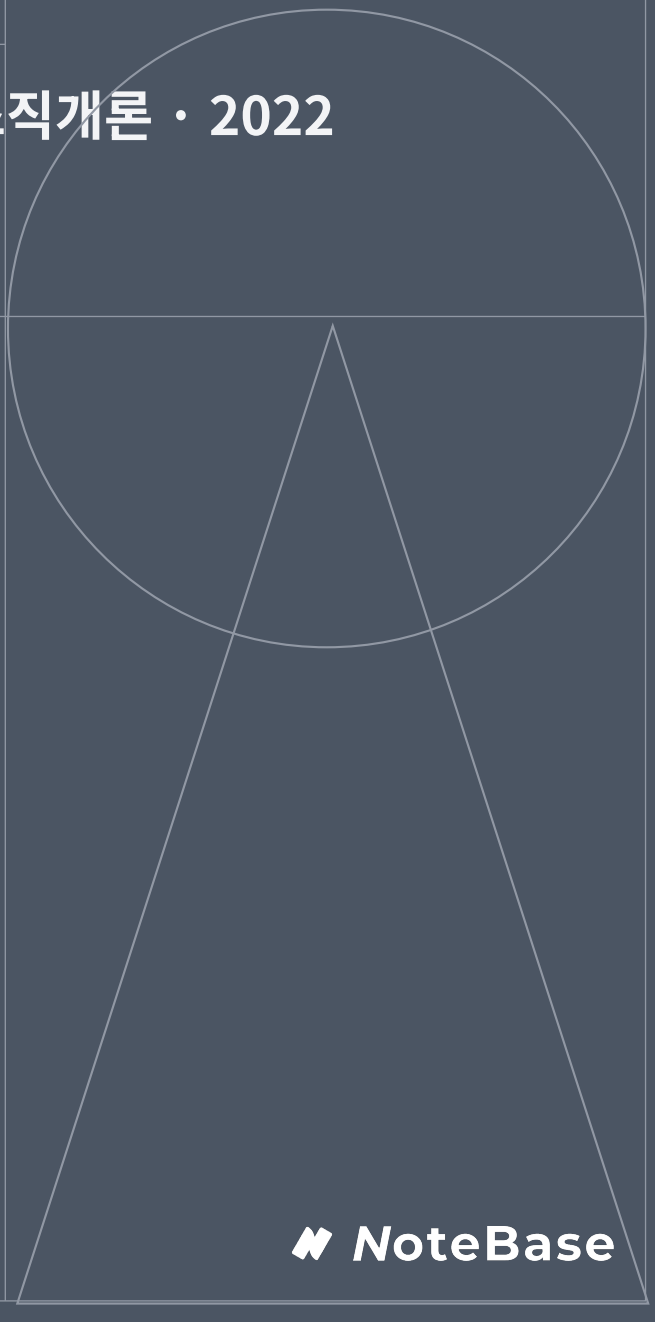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2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2

문 1. 자료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류를 자연적 분류와 인위적 분류로 구분할 때 자료분류는 자연적 분류에 해당한다.
ㄴ. 자료분류의 유형을 서가분류와 서지분류로 구분할 때 서지분류는 고정식 배열법에 해당한다.
ㄷ. 베이컨(F. Bacon)은 인간의 정신능력을 기억, 상상, 이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되는 지식(학문)을 사학, 시학, 철학으로 구분하였다.
ㄹ. 커터(C.A. Cutter)는 콩트(A. Comte)의 지식분류를 참고하여 주류를 진화적 및 과학적 순서로 배열한 전개분류법(EC)을 고안하였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료분류는 자료를 조직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에 맞추어 기준을 설정하는 **인위적 분류**이다. 자연현상의 객관적 성질을 근거로 하는 자연적 분류와 구별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자료분류는 **인위적 분류**에 해당한다. 자연적 분류는 자연현상의 객관적 성질과 관계를 근거로 하지만, 인위적 분류는 특정한 목적과 편의에 따라 분류 기준을 설정한다. 자료분류는 자료의 체계적인 조직과 이용을 위해 주제나 형식 등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후자에 속한다.

ㄴ. O: 전통적인 서지분류는 자료의 목록정보를 책자체 서지에 체계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분류이다. 책자에 인쇄된 저록의 배열은 고정되므로 **고정식 배열법**에 해당한다. 반면 서가분류는 실제 자료를 서가에 배열하기 위한 분류로, 청구기호에 따른 자료 간의 상대적 순서를 유지하는 상관식 배열법을 사용한다.

ㄷ. O: 베이컨(F. Bacon)은 인간의 정신능력을 기준으로 지식을 구분하여 **기억–사학, 상상–시학, 이성–철학**을 대응시켰다. 기억은 사실과 사건을 보존하는 능력, 상상은 창작하는 능력, 이성은 원리와 관계를 탐구하는 능력이라는 구분에 따른 것이다.

ㄹ. O: 커터(C.A. Cutter)는 콩트(A. Comte)의 지식분류를 참고하여 전개분류법(EC)을 고안하였다. 학문의 발달과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주류를 **진화적·과학적 순서**로 배열하려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국제십진분류법(UD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xpanded Dewey’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② 순수기호법을 적용하는 DDC보다 기호체계가 복잡하다.

③ 과학기술분야가 매우 상세하게 전개되어 있다.

④ 콜론분류법(CC)의 분석합성식 원리에 영향을 받아 초판이 발간되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UDC는 **DDC를 확장하여** 만든 분류법이며, 초판은 1905~1907년에 발간되었다. CC 초판은 1933년에 발간되었으므로, UDC 초판이 **CC의 분석합성식 원리에 영향을 받아** 나왔다는 설명은 발간 순서에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UDC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을 바탕으로 세부 항목과 주제 결합 기능을 확장한 분류법이다. 이처럼 **DDC를 확장한 성격** 때문에 'Expanded Dewey'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② O: DDC는 아라비아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순수기호법을 사용한다. UDC는 숫자에 더하여 +, /, :, 괄호 등의 기호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기호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호로 주제 사이의 관계나 자료의 형식·장소 등을 표현하므로, 기호의 종류와 결합 방식이 DDC보다 복잡하다.

③ O: UDC는 전 지식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세분 전개**가 상세하다. 전문적인 논문·보고서 등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세분하고 보조기호를 결합하므로, 과학기술 문헌의 상세한 주제 분류에 적합하다.

④ X: UDC 초판은 DDC를 기초로 확장하여 1905~1907년에 발간되었고, 랑가나단의 CC 초판은 1933년에 발간되었다. 따라서 **UDC 초판이 CC보다 먼저** 나왔으므로 CC의 영향을 받아 발간되었다고 할 수 없다. UDC 자체에도 주제를 여러 요소로 나누고 그 기호를 결합하여 복합 주제를 나타내는 분석합성적 기능이 있지만, 이를 CC에서 받아들여 초판을 만들었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서기호법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 도서기호를 부여할 때 자료가 출판된 연대 또는 연도를 문자나 숫자로 기호화하는 방법이다.
◯ 동일한 분류기호 내에서 여러 자료가 연대의 오름차순으로 배가되므로 지식 및 학문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브라우징할 수 있다.
◯ 서가에서 연대순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자료탐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① 박봉석
② 리재철
③ 브라운(J.D. Brown)
④ 랑가나단(S.R. Ranganathan)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제시문의 방법은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배열하는 연대순 도서기호법이다. 박봉석은 저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하는 **성명기호법**과 관련되므로 구별된다.

핵심 풀이

제시문의 '출판된 연대 또는 연도를 문자나 숫자로 기호화'한다는 단서는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가리킨다. 동일한 분류기호 안에서 **출판연도가 이른 자료부터** 배열하므로, 같은 주제의 문헌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브라운은 주제분류법에서, 랑가나단은 콜론분류법에서 연대순 도서기호를 제시했다. 리재철도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제안했으므로 세 사람은 제시된 방법과 관련된다.

박봉석의 성명기호법은 **저자의 성명을 기준**으로 도서기호를 부여하는 저자기호법이다.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대순 도서기호법과 구분되므로, 제시된 방법과 관련이 없는 인물은 박봉석이다.

NoteBase

문 4. DDC 제23판과 KDC 제6판의 강목에 대한 주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기호: 510, DDC 제23판: Mathematics, KDC 제6판: 의학

② 분류기호: 540, DDC 제23판: Chemistry, KDC 제6판: 건축, 건축학

③ 분류기호: 550, DDC 제23판: Physics, KDC 제6판: 기계공학

④ 분류기호: 570, DDC 제23판: Biology, KDC 제6판: 화학공학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DDC 550은 Physics가 아니라 **지구과학(Earth sciences)**이다. DDC에서 물리학(Physics)의 분류기호는 **530**이며, KDC 550을 기계공학으로 연결한 부분은 옳다.

선지별 해설

DDC와 KDC는 주제별로 부여한 분류기호가 다르므로, 같은 숫자라도 각 분류법의 강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① O: DDC 제23판에서 510은 수학(Mathematics)이고, KDC 제6판에서 510은 의학이다. 같은 510이지만 두 분류법에서 가리키는 주제가 다르다.

② O: DDC 제23판에서 540은 화학(Chemistry)이고, KDC 제6판에서 540은 **건축, 건축학**이다. 두 분류법의 강목을 각각 정확하게 연결했다.

③ X: DDC 제23판에서 550은 **지구과학(Earth sciences)**이다. 물리학(Physics)은 530에 해당하므로, DDC 550에 연결한 'Physics'를 'Earth sciences'로 고쳐야 한다. KDC 제6판에서 550은 기계공학이므로 이 부분의 연결은 옳다.

④ O: DDC 제23판에서 570은 생물학(Biology)이고, KDC 제6판에서 570은 화학공학이다. 생물학과 화학공학은 서로 다른 주제이지만, 각 분류법에서 모두 570을 부여한다.

NoteBase

문 5. KDC 제6판의 별법에 해당하는 분류기호가 아닌 것은?

① 정치지리학 : 340.98

② 경제학서지 : 320.026

③ 도서관법 : 368.002

④ 미국 시 : 849.1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치지리학의 340.98은 **별법이 아닌 일반 분류기호**이다. 별법은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기본 분류방식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체 분류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별법은 도서관의 장서나 이용자 특성에 맞추어 기본 분류방식과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규정이다. 분류기호가 주제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와 별법을 적용한 기호인지는 구별해야 한다.

① X: 정치지리학을 340.98에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류방식**이다. 정치지리학과 340.98의 연결 자체는 맞지만, 이를 별법에 해당하는 기호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② O: 주제별 서지는 원칙적으로 016 '주제별 서지 및 목록'에 분류한다. 별법으로는 **해당 주제 아래에 표준구분 -026**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학서지를 경제학 분야의 320.026에 분류할 수 있다.

③ O: 특수법률 및 법령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별법으로 특수법을 한곳에 모으려는 도서관에서는 **368 '기타 제법률' 아래에서 주제별로 세분**할 수 있으며, 도서관법의 368.002는 이 방식을 적용한 기호이다.

④ O: 미국문학은 원칙적으로 영국문학과 함께 840 '영미문학' 아래에 분류한다. 별법으로 **미국문학을 849에 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시를 나타내는 문학형식구분을 적용하면 미국 시는 849.1이 된다.

NoteBase

문 6. DDC 제23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보조표는?

808 Rhetoric and collections of literary texts from more than two literatures
.8 Collections of literary texts from more than two literatures
.801-.803 Collections displaying specific features
Add to base number 808.80 notation 1-3 from (가), e.g., collections of literature featuring classicism 808.80142, on death 808.803548
809 History, description, critical appraisal of more than two literatures
.01-.05 Literature from specific periods
Add to base number 809.0 the numbers following -090 in notation 0901-0905 from (나), e.g., history of 18☒☒ century literature 809.033

① (가): Table 3B, (나): Table 1
② (가): Table 3B, (나): Table 2
③ (가): Table 3C, (나): Table 1
④ (가): Table 3C, (나): Table 2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고전주의·죽음처럼 문학작품의 특징과 주제를 나타내는 기호는 **Table 3C**에서 가져온다. 18세기처럼 일반적인 역사시대를 나타내는 기호는 표준구분표인 **Table 1**에서 가져온다.

빈칸별 해설

(가) Table 3C: 808.801–808.803은 특정한 특징을 지닌 여러 문학의 작품집을 분류하는 구간이다. Table 3C의 1은 문체·분위기·관점 등의 특질, 2는 구성 요소, 3은 주제를 나타내므로, **작품의 특징·주제를 세분**한다는 지시와 맞는다. 제시된 예에서 고전주의의 기호 142를 808.80 뒤에 붙이면 808.80142, 죽음이라는 주제의 기호 3548을 붙이면 808.803548이 된다. Table 3B는 둘 이상의 저자에 의한 작품이나 그 작품에 관한 자료를 세분하는 표이며, 여기서 요구하는 특징·주제 기호의 직접적인 출처는 Table 3C이다.

(나) Table 1: 표준구분표의 0901–0905는 **일반적인 역사시대 구분**을 나타낸다. 809.01–809.05의 지시는 이 범위의 기호에서 090 다음에 오는 숫자만 기본번호 809.0 뒤에 붙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18세기는 09033이므로, 090을 제외한 33을 809.0 뒤에 붙여 809.033으로 분류한다. 지역 등을 구분하는 Table 2의 기호를 가져오는 지시가 아니다.

두 빈칸은 (가) Table 3C, (나) Table 1로 채워지며, 이 조합은 ③의 구성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DDC 제23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남아프리카에 거주하는 한국어 사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구』의 분류기호는?

305 Groups of people	
.7	Language groups Add to base number 305.7 notation 1-9 from Table 6, e.g., English-speaking people 305.721; then add 0 and to the result add notation 1-9 from Table 2
.8	Ethnic and national groups
.81-.89	Specific ethnic and national groups Add to base number 305.8 notation 1-9 from Table 5
Table 2	
-68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neighboring southern African countries
Table 5	
-957	Koreans
Table 6	
-957	Korean

① 305.7680957

② 305.7957068

③ 305.8680957

④ 305.8957068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연구 대상이 **한국어 사용자라는 언어집단**이므로 305.7을 적용한다. 여기에 한국어 기호 957, 연결 숫자 0, 남아프리카 지역 기호 68을 차례로 붙이면 305.7957068이 된다.

NoteBase

공통 해설

제시된 305.7의 지시문은 언어집단의 기본기호 305.7에 **Table 6의 언어 기호 → 0 → Table 2의 지역 기호** 순서로 기호를 덧붙이도록 한다. 이는 숫자를 더하는 산술 연산이 아니라 분류기호 뒤에 해당 숫자열을 이어 붙이는 규칙이다.

이 자료는 '한국인'이라는 민족집단이 아니라 '한국어 사용자들'이라는 언어집단에 대한 사회적 연구이다. 따라서 민족·국가집단의 기본기호 305.8과 Table 5가 아니라, 언어집단의 기본기호 305.7과 Table 6을 적용한다. Table 6에서 한국어의 기호는 957이므로 먼저 305.7957을 만든다.

그 뒤 지시문에 따라 0을 붙이고, Table 2에 제시된 남아프리카 지역 기호 68을 덧붙인다. 구성은 305.7 → 305.7957 → 305.79570 → 305.7957068이다. **언어를 먼저, 지역을 나중에** 반영하므로 지역 기호 68을 언어 기호 957보다 앞에 놓을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른 분류기호는 305.7957068이다.

NoteBase

문 8. DDC 제23판과 KDC 제6판에 따라 분류할 때 밑줄 친 부분을 기호화할 수 없는 것은?

① DDC 제23판 : 박경리 소설 전집

② DDC 제23판 : 영국 소설 비평

③ KDC 제6판 : 20세기 영미 소설

④ KDC 제6판 : 1990년대 한국 단편소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DDC 제23판에서 **개인 작가의 소설 전집**은 해당 작가의 소설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며, '전집'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별도 기호를 덧붙이지 않는다. 여러 작가의 작품집에 쓰는 전집 기호를 박경리 개인의 소설 전집에 적용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아래의 O/X는 밑줄 친 부분을 기호화할 수 있다는 판단의 성립 여부를 나타낸다.

① X: 박경리 소설 전집은 개인 저자의 저작이므로 DDC 제23판의 보조표 3A를 적용한다. 문학의 언어·문학형식·시대에 따라 분류하되, 소설 한 작품인지 소설 전집인지를 구별하는 기호는 덧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밑줄 친 **'전집'은 별도로 기호화할 수 없다**. 여러 저자의 저작에 적용하는 보조표 3B의 전집 기호를 붙여서는 안 된다.

② O: 영국 소설 전반에 대한 비평은 특정 개인 작가의 저작에 관한 비평과 구별한다. 여러 작가의 저작을 다루는 보조표 3B에는 **역사·해설·비평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으므로, 영국 소설의 분류기호에 비평이라는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

③ O: KDC 제6판은 영미소설을 843에 분류하고 시대에 따라 세분한다. 이 가운데 **843.5는 20세기 영미소설**을 나타내므로, 밑줄 친 '20세기'를 분류기호에 반영할 수 있다.

④ O: 1990년대 한국 소설은 20세기 한국 소설인 813.6에 해당한다. KDC 제6판은 이 항목에 소설의 종류를 세분하는 별법을 두고 있으므로, **별법을 적용하면 단편소설을 813.602**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단편소설'은 기호화할 수 있다.

NoteBase

문 9. KDC 제6판의 900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사 및 세계문화사 전반을 다룬 저작은 909에 분류한다.

② 특정 주제에 해당되지 않는 낱장지도나 지도책 등은 989에 분류한다.

③ 전기는 일반적으로 피전자의 주제에 분류하나, 한곳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990 아래에 분류한다.

④ 『조선시대 함경도의 역사』와 같이 시대와 지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시대구분을 먼저 하고 다음에 지역구분을 부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시대구분과 지역구분의 적용 순서를 거꾸로 설명했다. 시대와 지역이 함께 적용되면 **지역구분을 먼저 하고 시대구분을 부가**하므로, '조선시대 함경도의 역사'는 함경도라는 지역을 먼저 기준으로 삼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909는 '세계사, 세계문화사'에 해당한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의 역사나 문화사 전반**을 다룬 저작을 이곳에 분류한다.

② O: 989는 '지도 및 지도책'에 해당한다. **특정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낱장지도나 지도책은 989에 분류한다. 반면 특정 주제를 나타내는 지도는 지도라는 형태보다 그 주제를 기준으로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③ O: 피전자는 전기에서 생애를 서술하는 대상 인물을 뜻한다. 전기는 일반적으로 **피전자가 활동한 주제 분야**에 분류한다. 다만 여러 분야의 인물 전기를 한곳에 모아 두려는 경우에는 990 아래에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별 분류가 일반적인 방법이고, 전기류에 집중시키는 방법도 허용된다.

④ X: 시대와 지역이 동시에 적용되면 **지역구분을 먼저 하고 시대구분을 부가**한다. '조선시대 함경도의 역사'에서는 함경도라는 지역의 역사를 먼저 정하고, 그 아래에서 조선시대로 세분한다. 선지의 '시대구분을 먼저 하고 다음에 지역구분을 부가한다'는 적용 순서를 뒤바꾼 설명이다.

NoteBase

문 10. KDC 제6판의 문학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한 작가에 대한 비평은 그 작가와 함께 분류한다.

② 원작품이 자국어와 외국어로 쓰인 것은 자국어 문학 아래에 분류한다.

③ 어느 한 문학가가 다른 한 문학가에게 준 영향을 다룬 저작은 영향을 받은 문학가에 분류한다.

④ 문학작품은 원칙적으로 작가의 국적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영어로 쓴 소설은 한국소설에 분류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작가의 국적'은 **원작품에 사용된 언어**로 고쳐야 한다. 한국인이 영어로 쓴 소설은 한국소설이 아니라 영미소설에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 작가에 대한 비평은 **비평 대상인 작가**와 함께 분류한다. 비평을 쓴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비평이 다루는 작가의 문학을 기준으로 삼는다.

② O: 원작품이 자국어와 외국어로 쓰인 경우에는 **자국어 문학** 아래에 분류한다. 외국어만으로 쓴 작품에 언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두 언어가 함께 쓰인 원작품에는 자국어를 우선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③ O: 한 문학가가 다른 문학가에게 준 영향을 다룬 저작은 **영향을 받은 문학가**에 분류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준 영향을 연구한 저작은 B에 분류한다. 영향으로 나타난 B의 문학적 특성이나 변화를 다루기 때문이다.

④ X: 문학작품은 원칙적으로 **원작품에 사용된 언어**에 따라 분류하며, 작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인이 영어로 쓴 소설은 영어로 창작된 작품이므로 한국소설이 아니라 영미소설에 분류한다.

NoteBase

문 11. 서양의 목록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니치(A. Panizzi)의 목록규칙은 저자명 기본표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단체명 기본표목과 성서에 관한 통일표목을 인정하고 있다.

② AA Code는 최초의 국제적인 협동목록규칙으로 미국판과 영국판이 각각 발행되지 않고 통합되어 발행되었다.

③ 커터(C.A.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은 주제명 표목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규칙이다.

④ AACR2는 ISBD의 구두법을 따르고 있으며, 기술의 수준을 간략수준, 중간수준, 완전수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A Code는 영미가 공동으로 제정한 목록규칙이지만, 세부 규칙을 완전히 통일하지 못해 **미국판과 영국판을 각각 발행**했다. '국제적인 협동목록규칙'이라는 사실이 하나의 통합판으로 발행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표목은 목록에서 자료를 찾거나 배열할 때 기준이 되는 이름이나 표제이다.

① O: 파니치의 목록규칙은 **저자명 기본표목의 원칙**을 채택하여 저자명을 중심으로 자료를 배열했다. 단체 간행물의 기입에 관한 규칙도 두었으며, 성서와 그 부분은 'Bible'이라는 공통 표목 아래 모으도록 했다. 이는 성서의 여러 판과 번역본을 한데 모아 찾을 수 있게 하는 통일표목의 기능에 해당한다.

② X: AA Code는 1908년 미국도서관협회와 영국도서관협회가 협력하여 제정한 최초의 국제적인 협동목록규칙이다. 그러나 양국의 목록 관행 차이를 모두 해소하지 못했으므로 **미국판과 영국판이 별도로 발행**되었다. 선지의 '각각 발행되지 않고 통합되어 발행되었다'를 '미국판과 영국판이 각각 발행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커터의 사전체목록규칙은 저자명·서명뿐 아니라 **주제명 표목에 관한 규칙**도 포함한다. 사전체목록은 이러한 접근점을 하나의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목록으로, 이용자가 저자·서명·주제 중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자료를 찾도록 한다. 따라서 목록 작성의 편의보다 이용자가 자료를 찾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중시한다.

④ O: AACR2는 국제표준서지기술인 ISBD의 구두법을 따라 기술요소와 영역을 구분한다. 기술수준은 **간략수준·중간수준·완전수준의 3단계**이다. 간략수준은 필수적인 최소 요소를, 중간수준은 그보다 많은 요소를, 완전수준은 해당 자료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요소를 포함하므로 기술의 상세함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NoteBase

문 12. 분류목록과 비교하여 주제명목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제를 나타내는 용어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② 표목의 자모순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관련 주제가 용어에 따라 분산된다.

③ 검색을 위해서는 표목의 의미뿐만 아니라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④ 특정 주제를 다루는 관점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주제명 아래 자료를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주제명목록은 주제를 표현한 **용어를 통해 직접 검색**하므로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 않다. 분류체계와 분류기호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분류목록을 이용할 때의 특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주제명목록은 자료의 주제를 나타내는 말인 주제명을 표목으로 사용한다. 이용자는 분류기호로 바꾸는 과정 없이 **주제를 나타내는 용어로 직접 접근**할 수 있다.

② O: 주제명목록은 표목을 **주제의 체계적 관계가 아니라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따라서 내용상 관련된 주제라도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되면 목록에서 떨어져 배열될 수 있어, 관련 주제를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

③ X: 주제명목록은 언어로 표현된 표목을 통해 검색하므로, 표목의 의미를 이해하면 접근할 수 있으며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분류체계에서 주제가 놓이는 위치와 분류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은 분류기호순으로 배열하는 분류목록의 특성이다.

④ O: 분류목록에서는 같은 주제라도 이를 다루는 학문 분야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기호가 부여되어 자료가 분산될 수 있다. 주제명목록에서는 그러한 자료에 **동일한 주제명을 부여**하여 하나의 주제명 아래에서 함께 검색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집중은 서가의 물리적 배치가 아니라 목록에서의 검색상 집중을 뜻한다.

NoteBase

문 13.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의 설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변길이 제어필드는 지시기호, 식별기호, 데이터, 필드종단 기호로 구성된다.

② 디렉토리는 시스템에서 자동생성하며, 디렉토리 항목의 수는 입력된 표시기호의 수와 동일하다.

③ 리더/06에 입력되는 요소를 통해서 콘텐츠나 자료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생성되는 레코드의 유형을 구분한다.

④ 레코드는 리더, 디렉토리, 가변길이필드로 구성되며, 가변길이 필드는 가변길이 제어필드와 가변길이 데이터필드로 구분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은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의 구성을 제어필드의 구성으로 설명했다. 가변길이 제어필드는 **지시기호와 식별기호 없이 데이터와 필드종단기호만**으로 구성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00X에 해당하는 가변길이 제어필드는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를 갖지 않으며**, 데이터와 필드종단기호로 구성된다. 지시기호·식별기호·데이터·필드종단기호로 구성되는 것은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이다. 제어필드의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요소이거나, 각 자릿수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정해지는 데이터요소들로 이루어진다.

② O: 디렉토리는 레코드 안의 각 가변길이 필드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다. 각 항목에는 표시기호·필드길이·필드시작위치가 기록되며, **가변길이 필드마다 항목이 하나씩** 만들어진다. 따라서 디렉토리 항목의 수는 입력된 표시기호의 수와 같다.

③ O: 리더/06은 **레코드 유형**을 나타내는 자리로, 콘텐츠나 자료의 형태에 따라 레코드를 구분하는 1자리 영문 부호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a는 문자자료, j는 음악 녹음자료를 나타내므로, 이 자리의 부호를 통해 해당 레코드가 어떤 유형의 자료를 기술하는지 알 수 있다.

④ O: KORMARC 서지레코드의 주요 구성요소는 리더·디렉토리·가변길이필드이다. 리더는 레코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디렉토리는 가변길이 필드의 위치와 길이를 알려 준다. 가변길이필드는 다시 **가변길이 제어필드와 가변길이 데이터필드**로 나뉜다.

NoteBase

문 14.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으로 레코드를 작성할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대문학시리즈 99
나는 지금 미술관에 간다
2002년 7월 1일 초판 발행
2007년 3월 5일 제2판 발행
2015년 1월 3일 제3판 1쇄 발행
2016년 8월 5일 제3판 2쇄 발행
홍길동 글 심청이 그림
발행처 / 좋은하늘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111번지)
ISBN 978-11-23567-12-1 가격 23,000원
마지막 페이지는 133쪽임. 천연색 삽화와 지도, 도표가 포함되어 있음. 크기는 가로 17.5 cm, 세로 24.1 cm임
ㄱ. 020 ▼a978-11-23567-12-1 : ▼c₩23000
245 ▼a나는 지금 미술관에 간다 / ▼d홍길동 글 ;
▼e심청이 그림
250 ▼a제3판
ㄴ. 260 ▼a서울 : ▼b좋은하늘, ▼c2016
ㄷ. 300 ▼a133 p. : ▼b천연색 삽화, 도표, 지도 ; ▼c25 cm
ㄹ. 490 ▼a현대문학시리즈 ; ▼v99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ISBN의 붙임표는 출력할 때 자동으로 표시하므로 **020 필드에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판을 다시 인쇄한 경우 발행년은 재쇄년이 아니라 **해당 판의 최초 발행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제3판의 발행년은 2015년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020의 ▼a에는 ISBN을 **붙임표 없이** 입력한다. 따라서 '020 ▼a9781123567121 : ▼c₩23000'으로 고친다. 붙임표는 출력 시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표시이므로 인쇄된 ISBN의 모양을 그대로 입력하지 않는다. 245에서 본표제를 ▼a에, 첫 번째 책임표시인 '홍길동 글'을 ▼d에, 두 번째 책임표시인 '심청이 그림'을 ▼e에 기술한 것은 맞다. 250의 ▼a에 판표시 '제3판'을 기술한 것도 맞지만, 020에 오류가 있어 ㄱ 전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X: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는 동일한 판의 재쇄본을 기술할 때 **그 판이 처음 발행된 해**를 발행년으로 삼는다. 이 자료는 제3판 2쇄이므로 제3판 1쇄가 발행된 2015년을 적용한다. 2016년은 제3판의 재쇄년이다. 발행지 '서울'과 발행처 '좋은하늘'은 맞으며, 발행사항은 '260 ▼a서울 : ▼b좋은하늘, ▼c2015'로 고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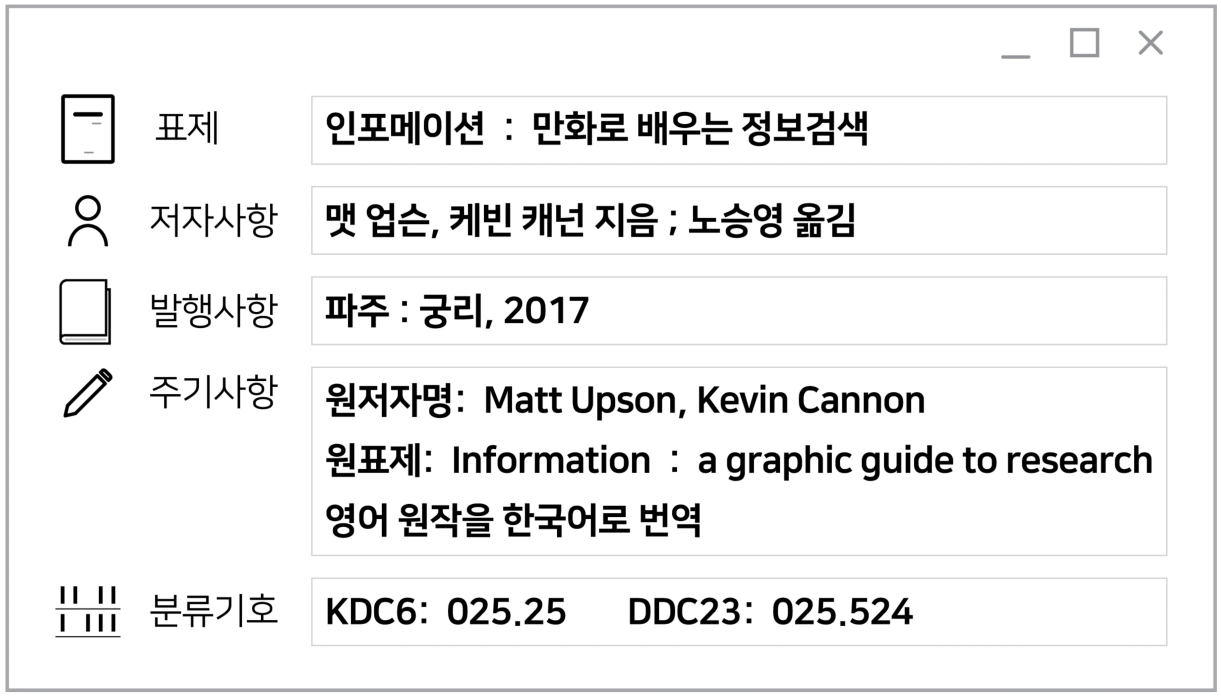
ㄷ. O: 300은 형태사항을 기술하는 필드로, ▼a에는 수량, ▼b에는 삽화 등 기타 물리적 특성, ▼c에는 크기를 기록한다. 마지막 쪽이 133쪽이므로 '133 p.'로 적고, 삽화의 천연색 여부와 도표·지도의 존재도 ▼b에 반영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세로형 도서는 세로 길이를 cm 단위로 표시하면서 **1 cm 미만의 단수를 올린다**. 따라서 세로 24.1 cm는 25 cm로 기술한다. '천연색 삽화, 도표, 지도'는 삽화를 먼저 적고 나머지를 열거한 것으로 적절하다.

ㄹ. O: 490은 자료에 나타난 총서사항을 기술한다. ▼a에는 **총서명**, ▼v에는 **총서번호**를 기록하므로 '현대문학시리즈'와 '99'를 각각 입력한 것은 적절하다.

옳은 보기는 ㄷ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으로 작성된 레코드의 OPAC 검색결과 일부이다. 이에 해당하는 원데이터의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056 ☒a025.25 ☒26

② 246 19 ☒aInformation : ☒ba graphic guide to research

③ 500 ☒a원저자명: Matt Upson, Kevin Cannon

④ 534 ☒a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은 **546 언어주기**에 기록한다. 534 원본주기는 영인·복사 등 복제물의 원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필드이므로 이 번역 언어 설명에 사용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화면의 'KDC6: 025.25'는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에 따른 분류기호가 025.25임을 나타낸다. 056은 한국십진분류기호 필드이며, ☒a에는 분류기호를, ☒**2에는 적용한 분류표의 판**을 기록한다. 따라서 '056 ☒a025.25 ☒26'에서 ☒26은 식별기호 ☒2 뒤에 판표시 6을 기록한 것이다.

② O: 화면의 원표제는 'Information : a graphic guide to research'이다. 246은 여러 형태의 표제를 기록하는 필드이며, 제1지시기호 1은 주기와 표제부출을 모두 생성한다는 뜻이고 **제2지시기호 9는 원표제**를 뜻한다. ☒a에는 'Information'을, ☒b에는 표제 관련 정보인 'a graphic guide to research'를 기록한다. 화면의 '원표제:'는 제2지시기호에 따라 생성되므로 원데이터에 직접 넣지 않는다.

③ O: 화면의 '원저자명: Matt Upson, Kevin Cannon'은 원저자 이름의 원어 표기를 알려 주는 일반적인 주기이다. 500은 다른 특정 주기 필드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기록하는 일반주기 필드이므로, ☒**a에 표출 문구와 원저자명을 함께** 기록한다. 따라서 '500 ☒a원저자명: Matt Upson, Kevin Cannon'으로 기술할 수 있다.

④ X: 화면의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은 원작의 언어와 번역문의 언어를 설명하므로 **546 언어주기의 ☒a**에 기록한다. 원데이터는 '546 ☒a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으로 고쳐야 한다. 534는 영인·복사·마이크로형태 등에 의한 복제물의 원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원본주기 필드이며, 그 ☒a는 원본의 기본표목을 기록하는 식별기호이다. 따라서 번역 언어에 관한 문장을 '534 ☒a'에 기록한 것은 필드와 식별기호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6.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에 따라 단행본의 자원유형을 표시할 때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내용유형: text, 매체유형: object, 수록매체유형: book

② 내용유형: text, 매체유형: unmediated, 수록매체유형: book

③ 내용유형: text, 매체유형: unmediated, 수록매체유형: volume

④ 내용유형: volume, 매체유형: object, 수록매체유형: text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인쇄 단행본은 **별도의 기기 없이** 읽으므로 매체유형은 unmediated이다. 책 형태를 나타내는 수록매체유형에는 book이 아니라 **volume**을 쓴다.

대응 관계 해설

내용유형: text. 내용유형은 자원의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문항의 단행본은 문자를 통해 언어 내용을 전달하므로 **text**에 해당한다. volume은 내용의 표현 형식이 아니라 책의 물리적 형태를 나타낸다.

매체유형: unmediated. 매체유형은 자원의 내용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매개 기기의 유형을 나타낸다. 인쇄된 책은 재생기나 컴퓨터 같은 **매개 기기 없이 직접 읽을 수 있으므로** unmediated에 해당한다. object는 매체유형이 아니라 실물 등의 수록매체유형에 쓰는 용어이다.

수록매체유형: volume. 수록매체유형은 내용이 담긴 매체의 구체적인 물리적 형식을 나타낸다. 낱장들이 한 단위로 묶인 책 형태는 **volume**으로 표시하며, 이 항목의 RDA 용어로 book을 쓰지 않는다. text는 물리적 형식이 아니라 내용유형이다.

따라서 내용유형 text, 매체유형 unmediated, 수록매체유형 volume의 연결이 성립하며, 이는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MODS의 기술 예시 중 (가) ~ (라)에 해당하는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의 표시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

<mods>
(가) **<titleInfo>** <title>American ballroom companion </title> **</titleInfo>**
<name type="corporate"> <namePart>Library of Congress</namePart> </name>
(나) **<originInfo>**
<place> <placeTerm type="text">Washington, D.C.</placeTerm> </place>
<publisher>Library of Congress</publisher>
<dateIssued>2020</dateIssued> **</originInfo>**
(다) **<targetAudience** displayLabel="Audience"> Young adult</**targetAudience>**
(라) **<subject** authority="lcsh"> <geographic>United States</geographic> **</subject>**
</mods>

① (가) - 245
② (나) - 260
③ (다) - 521
④ (라) - 6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라)의 'United States'는 개인명이 아니라 **지명**을 주제로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600(주제명부출표목 - 개인명)이 아니라 **651(주제명부출표목 - 지명)**에 대응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titleInfo에 속한 title은 자료의 표제를 나타내며, 예시에서는 'American ballroom companion'이다. KORMARC의 **245는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기술하는 필드이므로 이 표제는 245의 식별기호 ☒a(본표제)에 대응한다.

② O: (나)의 originInfo에는 발행지 'Washington, D.C.', 발행처 'Library of Congress', 발행년 '2020'이 제시되어 있다. **260은 발행, 배포, 간사 사항**을 기술하는 필드이며, 이 정보는 각각 ☒a(발행지), ☒b(발행처), ☒c(발행년)에 대응한다.

③ O: (다)의 targetAudience는 자료가 대상으로 삼는 이용자층을 나타내며, 'Young adult'는 청소년 이용자층을 가리킨다. **521은 이용대상자 주기**를 기술하는 필드이므로 이 내용은 521의 ☒a(이용대상자)에 대응한다.

④ X: (라)는 subject 안의 geographic에 'United States'를 기술하여 미국을 지명 주제로 제시한다. 600은 개인명을 주제로 기술하는 필드이므로 이 연결은 맞지 않는다. 지명 주제는 **651(주제명부출표목 - 지명)**에 기술하며, 'United States'는 그 식별기호 ☒a(지명)에 대응한다.

NoteBase

문 18.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으로 레코드를 작성한 사례이다. (가) ~ (라)에 들어갈 연관저록의 표시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계간 잡지 『디자인』이 『디자인과 공예』로 표제가 변경됨
(서지레코드 1, 서지레코드 2)
◯ 『산행』은 『산과 인간』의 별책부록으로 발간됨
(서지레코드 3, 서지레코드 4)

서지레코드 1	245 ▼a디자인 (가) ▼t디자인과 공예, ▼g제11권 제1호-
서지레코드 2	245 ▼a디자인과 공예 (나) ▼t디자인, ▼g제1권 제1호-제10권 제4호
서지레코드 3	245 ▼a산과 인간 (다) ▼t산행
서지레코드 4	245 ▼a산행 (라) ▼t산과 인간

① (가) - 785
② (나) - 780
③ (다) - 770
④ (라) - 773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산행』은 『산과 인간』의 별책부록이므로, 『산행』의 레코드에서 본편을 연결하는 (라)에는 **772(모체레코드저록)**를 쓴다. 773(기본자료저록)은 수록된 구성단위에서 그 구성단위를 포함한 자료를 연결할 때 쓰는 필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서지레코드 1의 본표제는 『디자인』이며, (가)에는 표제 변경 후의 『디자인과 공예』가 기술되어 있다. 『디자인』을 기준으로 『디자인과 공예』는 **직접적인 후속자료**이므로 785(후속저록)를 쓴다.

② O: 서지레코드 2의 본표제는 『디자인과 공예』이며, (나)에는 변경 전 표제인 『디자인』이 기술되어 있다. 현재 기술하는 『디자인과 공예』를 기준으로 『디자인』은 **직접적인 선행자료**이므로 780(선행저록)을 쓴다.

③ O: 서지레코드 3은 본편인 『산과 인간』의 레코드이며, (다)에는 별책부록인 『산행』이 기술되어 있다. 본편의 레코드에서 **별도 레코드로 작성된 부록**을 연결하므로 770(보유판 및 특별호 저록)을 쓴다.

④ X: 서지레코드 4는 별책부록인 『산행』의 레코드이며, (라)에는 그 본편인 『산과 인간』이 기술되어 있다. 별책부록의 레코드에서 모체자료를 연결하므로 773이 아니라 **772(모체레코드저록)**를 써야 한다.
773(기본자료저록)은 논문처럼 다른 자료에 수록된 구성단위의 레코드에서 그 구성단위를 포함하는 자료를 연결할 때 사용한다. 이 사례는 별책부록과 본편의 관계이므로 772를 적용한다.

NoteBase

문 19. 전통적인 주제명표목표에서 사용되는 참조를 바탕으로 전거레코드를 작성할 때, (가) ~ (라)에 들어갈 표시기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주제명표목표	
문화부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부

전거레코드	
110 ▼a문화체육관광부 (가) ▼a문체부 (나) ▼a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다) ▼a문화부	110 ▼a문화부 (라) ▼a문화체육관광부

① (가): 410, (나): 410, (다): 510, (라): 510

② (가): 410, (나): 510, (다): 510, (라): 410

③ (가): 510, (나): 410, (다): 410, (라): 510

④ (가): 510, (나): 510, (다): 410, (라): 41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문체부'와 영어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안내하는 **보라참조**이므로 410에 기록한다. 반면 '문화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채택된 표목 사이의 **도보라참조**이므로 서로를 510에 기록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110은 해당 전거레코드의 채택 단체명을 기록하는 필드이다. 제시된 주제명표목표에서 '→'는 비채택표목에서 채택표목으로 안내하는 보라참조이고, '⇒'는 관련된 채택표목 사이를 연결하는 도보라참조이다. 단체명의 보라참조를 만들기 위한 비채택명은 410에, 도보라참조를 위한 관련 채택명은 510에 기록한다.

(가) 410: '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체부'는 채택명으로 안내하는 약칭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를 110에 둔 레코드에서 **비채택명인 '문체부'**를 410에 기록한다.

(나) 4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문화체육관광부'도 보라참조이다. 이 표목표에서 영어 명칭은 **채택된 한국어 명칭으로 안내하는 이형명**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레코드에서 410에 기록한다.

(다) 510: '문화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역방향의 참조는 두 채택표목을 연결한다. '문화부'는 이 표목표에서 단순한 비채택 약칭이 아니라 **별도의 채택표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레코드에 관련 단체명으로 510에 기록한다.

(라) 510: 오른쪽 레코드의 110은 '문화부'이다. 이 레코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보라참조로 연결되는 다른 채택표목**이므로 510에 기록한다. 왼쪽 레코드의 (다)와 오른쪽 레코드의 (라)는 같은 두 채택표목의 상호 관계를 각각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가)·(나)·(다)·(라)의 배열은 410·410·510·510으로, ①의 연결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도서관의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 Linked Open Da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데이터의 중복 구축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 공유방법이다.
ㄴ. 웹상의 다양한 정보가 서로 연계되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ㄷ.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를 LOD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LOD는 공개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중복 구축을 줄이고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 LOD도 서지데이터와 저자명·주제명 전거데이터를 공개한다.

보기별 해설

ㄱ. O: LOD는 데이터를 웹에서 식별하고 연결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이다. 다른 기관이 이미 구축한 데이터를 **연결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관마다 같은 정보를 새로 구축하는 중복을 줄일 수 있다.

ㄴ. O: 서로 다른 데이터에 담긴 관련 대상들을 연결하면 한 데이터만으로 알 수 없던 정보까지 함께 탐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의 서지정보를 저자 정보와 연결하면 그 저자의 다른 저작도 찾아볼 수 있어 **정보의 범위와 맥락이 풍부해진다**.

ㄷ. O: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 LOD를 통해 **서지데이터와 저자명·주제명 전거데이터**를 공개한다. 서지데이터는 도서 등의 제목·발행사항과 같은 자료 정보를 기술하고, 전거데이터는 저자명이나 주제명 등의 표목을 일관되게 식별·관리하는 기준 정보를 담는다. 이들 데이터를 R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웹에서 연결·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ㄱ, ㄴ, ㄷ이 모두 옳으므로 세 보기를 모두 포함한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